

## 함도하 Ham Doha (b. 1978)

### 학력

2016 홍익대 목조형 가구 디자인 석사 졸업

### 개인전

2024 그랜드 하얏트 선정 작가 및 'POPDOHA' 개인전, 서울  
2024 기장 아난티 호텔 'I BELIEF' 개인전, 부산  
2023 갤러리나우 'NoW HAMDOHA', 서울  
2023 디오티미술관 '오늘은 행복으로 할래', 부산  
2023 인사 1010 갤러리 '나와 함께', 서울  
2021 비스타 워커힐 선정 작가 및 개인전, 서울  
2021 BHAK 갤러리 'I AM NOT THE FURNITURE', 서울  
2020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렌드 본사 사옥 'life long with art', 서울  
2020 포르쉐 자동차 브랜드 'I'm not the PORSCHE', 제주

### 단체전

2024 THE MASTER OF AMERICAN POP ART 국내특별 전, 서울  
2023 정부서울청사 갤러리 기획초대전 '의인화 화법', 서울  
2023 수성아트오디세이 '동시대 미술', 대구  
2023 갤러리 BHAK 'A Perfect Getaway', 서울  
2023 갤러리 BHAK '다방', 서울  
2022 신세계 백화점 'My First Art Collection', 서울

## 함도하의 세계

그의 작업과 작품은 대체로 키치적이다. 두 말할 것 없는 드러난 작품적 경향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와 정신의 물질을 키치의 스타일에만 두는 것은 곤란한 지점을 스스로 자인하게 된다.

그는 어느 한 편으로 보면 극단적일 정도로 진지하다. 예술을 대하는 자세에서 태도의 경건함이 내비쳐지기도 하다.

경건의 용어 정의를 종교 영역을 넘어서서 확장적으로 적용하는 게 용인된다면 그의 경건은 끊임없이 작품을 제작하고, 한 순간도 작품의 원형과 그 과정, 그리고 마무리되는 종결의 세계까지 눈을 떼지 않는 엄밀함과 지속성에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는 충분히 진지하며, 충분히 그 작품을 대하는 태도와 스타일을 경건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과 키치가 언발란스하지는 않다. 키치란 미술 분야의 한 사조일 수도 있고, 키워드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예컨대 키치를 예술의 한 소전제라고 본다면 함도하 그가 작품의 안팎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철학은 그 소전제를 품은 대전제의 물결을 향해하고자 하는 적극적 야심을 읽을 수 있다.

이는 키치적인 도시 스타일을 피상적으로 스케치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게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의 본질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다. 관상적 조형미를 시작으로 한 그의 조형 작업은 때론 발랄하게, 때론 따뜻하게 다가오면서 대체로 관객과 소장자의 눈높이에 적절히 부합하는 작품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이 평범해 보이지 않는다. 그가 보이는 일련의 작업은 하나 하나가 균질하지 않다. 가장 평탄하고 직관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하지만, 그 전달이 그의 미학 메시지 전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의 화두를 던져준다는 점에 저절로 주목하게 한다. 그의 작품을 대하는 관객은 직관적인 즐거움과 따뜻함에 주목하지만, 어느 순간 그가 던진 미술 세계에 관한 화두에 집중하게끔 요청하는 마력의 장이 펼쳐진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가 추구하는 예술에서의 사람, 키치란 소전제에서 시작한 현대사회에서의 우리 삶의 스타일의 사이에 숨어 있는 본질에 관한 더없이 진지한 질문에 주목하게 만드는 힘일 것이다.

글. 소설가 주원규